



발행일 _ 2014년 7 · 8월
 등록번호 _ 2289-0262
 발행인 _ 신영호
 편집·진행 _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_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_ 삼화인쇄

info.leet.or.kr

- 04 로스쿨 오피니언**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동권 교수/원장
- 08 로스쿨 탐방**
 박영규 원장과 함께 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2 행복 로스쿨**
 강원대학교 로스쿨 강대규 학생
-
- 14 로스쿨 핫이슈**
 미국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 22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서연
 about the world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세경
- 26 파워인터뷰**
 대구지방검찰청 김석순 검사
- 30 리걸클리닉 스케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 34 명예기자단 소개**
 11명의 명예기자단 1기를 소개합니다!
-
- 36 문화가 산책**
- 38 협의회 소식**
- 39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손 동 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

I. 로스쿨 교과과정과 연계된 변호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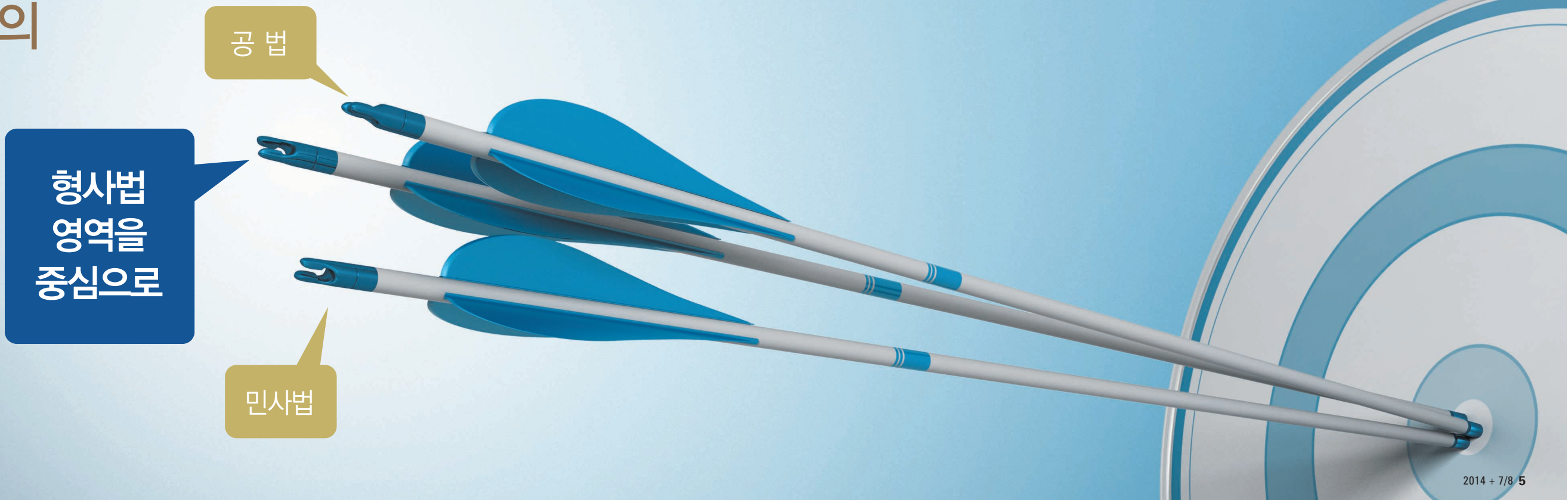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된 이후, 3기에 걸친 졸업생들이 이미 배출되었고, 현재 4기에서 6기까지의 입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생들을 선발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즉 종래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취지에서 로스쿨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전국의 모든 로스쿨은 매우 엄격한 인가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설립하였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통일적이고 엄격한 상대평가, 유급제도, 졸업시험 제도 등을 통하여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이러한 엄격한 학사관리와 연계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입학정원의 75%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서도,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

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의 능력과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상당한 법학 내지 실무 능력을 함양한 학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상응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정식 변호사시험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바람직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한 차례 정식 변호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으로 참여한 본인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되고 있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곧바로 기술해 보기로 한다.

II. 형사법 영역 변호사시험 시행내용의 소개와 평가

1. 잘 아시다시피, 형사법 영역의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 주관식 사례 논술형, 기록형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가 출신이 아닌 필자로서는 기록형은 생략하고, 나머지 2개의 문제 형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객관식 선택형의 경우 순수 형법문제가 18개 정도(총론문제 10개, 각론문제 8개), 순수 형소법 문제가 10개 정도, 그리고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문제가 8개 정도의 구성으로 출제된다. 형법 객관식시험의 경우는 사법시험 1차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는데, 여기서는 5지문 이상의 문제도 출제되는데 반하여 변호사시험은 오직 5지선택으로만 출제되는 점에서 사법시험과는 다소 다르다. 변호사시험에 고유한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문제는 대개 설문에서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서 이 사례에 대한 형법과 형소법의 논점을 함께 선택 지문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관식 사례 논술형 문제와 중복된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결합형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다소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법의 경우 설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언이 종종 가미되어 있는데, 이것도 학설대립이 있는 영역에서 정답의 명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시험과의 수준을 비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교해 본다면, 형법 객관식의 경우는 사법시험 못지않게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고, 형소법 문제와 결합형 문제도 출제된다는 점에서는 - 공부하여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는 더욱 실무 지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의 객관식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읽어야 할 글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사법시험과 동일하게 일종의 속독시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법 영역 정식 변호사시험의 문제 당 글자 수가 600자(제1회)에서 693자(제2회), 708자(제3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선택형의 경우, 1문제당 평균 1분45초(읽는 시간 1분, 생각할 시간 45초) 안에서 풀 수 있는 글자 수, 즉 40문제를 70분에 풀어야 하는 형사법 영역의 경우 문제 당 500~550자 정도의 글자 수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응시생을 불합격시켜야 하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대부분의 응시생을 합격시켜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글자 수가 크게 증가되는 현재의 출제 경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선택형 문항 글자 수 (총 / 1문당 평균), 지면수			
	공 법	형 사 법	민 사 법	
부 부 부	제1회 시험 ('12.01)	29,515 / 738 12	23,992 / 600 12	41,911 / 599 19
	제2회 시험 ('13.01)	26,448 / 661 11	27,732 / 693 11	44,024 / 629 18
	제3회 시험 ('14.01)	39,778 / 994 16	28,312 / 708 12	47,307 / 676 19
	평균 글자 수	31,913 / 798 -	26,679 / 666 -	44,414 / 634

2. 형사법 사례논술형의 경우, 제1문과 제2문의 출제위원은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조마다 순수 학자출신 교수 1명, 실무가 출신 교수 1명,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내지 실무가(변호사포함) 1명이 출제위원으로 구성되는 것 같다. 이론과 실무의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이러한 구성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시험과 다른 점은 변호사시험에서는 형법(실체법) 논점과 형사소송법(절차법) 논점이 항상 결합되어 출제된다는 것이다. 각 자의 배점은 초기에는 형법 60점 대 형소법 40점으로 분배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형사소송법을 선호하는 실무가 내지 실무가 출신교수에 의해 형법 55점 대 형소법 45점의 비율로 약간 수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논술형의 출제형식에 있어서는 형법 설문과 형소법 설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형법 설문의 경우는 위에 제시된 사례에서의 행위자의 죄책을 묻는 것 하나가(예컨대 갑, 을, 병의 죄책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시험응시자가 그 사례에 대한 적용 구성요건들과 관련 논점을 스스로 찾아 논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문 형식은 형법문제로서는 바람직한 실무형 법학 방법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형사소송법 문제는 구체적 형소법 논점에 대해 답하라는 형식, 그리고 설문이 수개에 해당하는 분설형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설문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의 평소 공부



방법도 이에 맞추어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채점방식은 사법시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법시험의 경우는 해당 출제위원만이 모든 답안지를 채점한다. 즉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동일하다. 따라서 채점위원 사이의 편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경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과 별개로 구성된다. 다만 출제위원은 수개조로 나누어진 채점위원의 일원으로서만 참여한다. 따라서 출제위원은 물론이고 몇 개 조로 나누어진 채점위원도 일부의 답안지만 채점을 하게 된다(대개 1인당 500매 정도가 배정됨).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채점 조 내지 채점위원 간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편차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채점기준표의 설정, 균등한 채점을 위한 사전 채점위원회의 및 모의채점연습, 사후 점수조정제도 등을 통해 법무부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사법 영역에서 지금까지 출제된 사례 논술형 문제들에서 부정적으로 비판받는 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변방에 있는 지엽적 논점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중요 논점들이 그 동안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례 논술형 시험의 답안작성과 관련하여 수험생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례해결에 있어 견해대립이 있는 논점을 서술할 경우 가능하면 판례의 태도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변호사시험은 합격 후 곧바로 실무를 담당해야 할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이고, 판례의 태도가 바로 실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맺는 말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과과정과 연계되어야 하고, 그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기본적 법학 내지 실무 능력을 함양한 학생이라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형의 경우 글자 수가 너무 과도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점차 글자 수가 사법시험과 같이 많아지고 있는 최근 선택형 변호사시험의 경향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시험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따라서 수업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논점 및 판례들이 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 협의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 출제하고 모든 로스쿨이 졸업시험 등의 대응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모의변호사시험에서 다루어진 논점 및 판례는 물론이고, 전국 로스쿨의 중간 내지 기말 시험에서 공통적,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중요논점들도 정식 변호사시험에서 다시 출제되어도 무방하다(다만 해당학교의 수험생에게만 은밀히 치러지는 모의시험에 출제된 변방의 지엽적 논점은 반드시 출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 또한 법무부가 주무기관으로 관여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대부분 중요한 기본논점에 대한 것이고 철저히 검증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출문제의 논점은 변호사시험에서는 해마다 반복하여 출제되어도 무방한 것이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한꺼번에 3가지 유형(선택형, 사례 논술형, 기록형)의 시험을 보면서, 사법시험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기본3법 이외 과목에 대한 객관식 선택형 시험과 선택과목에 대한 논술식 시험도 추가되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단기학습 내지 시험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객관식 선택형 시험에서 기본과목 이외의 것을 제외시키자는 견해, 변호사시험에서 몇 개로 제한된 선택과목을 제외시키고 그 대신 선택과목의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해당과목의 학점비수로 대체하지는 등의 주장의견에 대해서도 이제는 귀를 기울일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 기본적인 법학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소위 자격시험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갖추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법률가 양성이 목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영규 원장 인터뷰

시립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국공립 대학교이다. 높은 교육의 질, 사립대에 비해서 저렴한 수업료는 우수한 학생들이 시립대학교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사립 법전문보다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훌륭한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어느 오후, 박영규 원장을 만나 입시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야기와 향후 시립대 법전문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자평한다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법전문원의 특징은 서울특별시 설립·운영하는 공립형 법전문원이라는 것이다. 교수진과 시설, 학비와 장학금 등 모든 지표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또한 입시나 학사 운영 등에 있어서도 공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 공무, 공행정의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전문원은 취업률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교육자적인 관점을 통해서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서 등록금이 많이 저렴한가.

그렇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반 정도 수준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 법전문원은 타 법전문원에 비해서 반 정도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다. 또 장학금 지급율도 높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우리는 학칙에 세 가지의 교육 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첫째는 정신적인 측면이다. 지식을 가지고 단 순히 돈벌이를 하는 법률가가 아니라, 교양과 지성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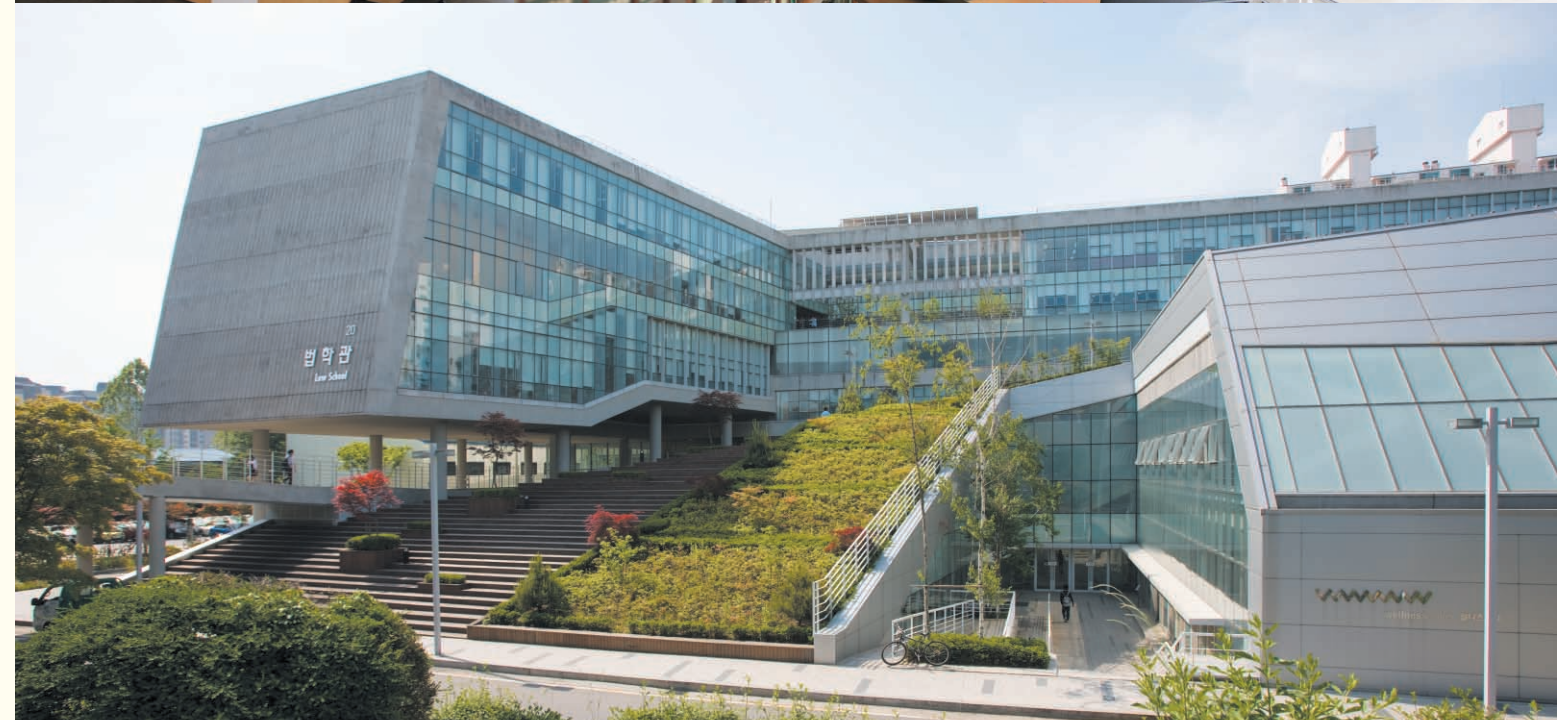
리고 윤리의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둘째는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성화인 조세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과'가 상대적으로 강점인데, 아무래도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해서 특성화 분야 교육을 한다.

특성화인 조세법 분야로 진출하는 졸업생이 많은가.

우리 법전문원은 조세법 분야를 특성화로 하고 있어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 자격을 미리 갖추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조세 관련 쟁송을 담당하는 요원 등으로 각종 회계 법인이나 로펌에 취업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 양질의 법학교육 제공, 사회적 기여를 위해 학기 당 약 500만원의 합리적 등록금 책정
- 등록금 총액 기준 장학금 지급률 49.7%
- 전문화와 국제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 진로·취업 특강, 취업 상담 및 취업 설명회, 멘토링 제도
- 외국의 유명대학 및 연구소와 법률교육 및 실습을 위한 협약 체결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10개의 국가에 있는 대학·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정규 교과목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정규 교과목과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다. 방학 중에 학생들이 지도교수 인솔 하에 유관기관을 탐방하고, 돌아와서는 정규학기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보완함으로써 학점을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나.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도교수제'를 활용해서 지도교수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학생 지도센터에서 취업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제기구 진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면 국제기구 변호사들을 초대해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한다. 또 근래에 졸업해서 사회에 갓 진출한 분들과의 만남의 장을 열고, 연중 4회 법률가 초청 행사도 개최한다. 최근에는 동네변호사로 불리는 이미현 변호사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상적인 법조인의 모습은.

서양 법률 속어에,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 좋은 법률가는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고 본다. 즉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왜곡됐을 때 발 벗고 나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불법적 로비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하는 몇몇

한 변호사의 모습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존경 받는 법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시립대 법전원에는 어떤 학생들이 입학했으면 하나.

각 법전원마다 대동소이 하겠지만, 논리성과 이성적 판단을 갖춘 학생이 필요하다. 또 법률이라는 것이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인간미도 아울러 요구된다. 특히 우리는 공립대학이다보니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즉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서울시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상을 추구한다.

원장으로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법전원이 출범할 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무조건 암기만 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법률문제를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창의성있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이 나의 소신이자 목표이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

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에 시민의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진행하는 법무행정을 비롯해 서울 시민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의 향후 방향은.

서울특별시의 법치 행정에 이바지 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잡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법류 사건에 봉착하면 세금문제, 공공행정 문제, 법률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때 시민들은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다산 콜센터처럼 윈스탑 서비스 센터의 기능을 갖춘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전원은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여러 가지 전문 자격이 있는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꽤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립 법전원이다보니 법령상 5%의 특별전형 학생 선발도 10%, 비법학사 학생 선발 비율도 1/2이나 된다. 사실 이런 요소들이 입시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들이다. 또 출구통제(졸업을 많이 시키지 않으므로써 응시자 수를 낮춰 합격률을 높이는)도 전혀 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고 판단되면 의도적 통제 없이 졸업을 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하고 있다. 이런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법전원이 평균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 더 많은 변호사가 배출돼야 한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우수한 어학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국제무대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송무 시장의 사정만을 고려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에서는 응시자대비 70-80%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우리 법전원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더라도 사회 정의, 법치주의 실현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온다면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법전원을 통해서 법조인의 꿈을 실현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editor _ 박소희

협약 체결 기관 현황	·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처,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법무공단, 한국조세연구원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정평, 법무법인 두레, 법무법인 아시아,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남산, 법무법인 다운, 왕미양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소명
	· 회계법인, 기타 기업	삼일회계법인, 충정회계법인, 한국산업은행

“모두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강원대학교 로스쿨 강대규 학생 인터뷰(5기)

“행복한 삶에 이르려면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로마 제정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본인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강대규씨는 이십대 후반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했다. 법 공부가 어렵고 힘들지만 낭만도 있다며 미소 짓는다. 그의 웃음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봤다.

이십대 후반, 새롭게 꿈 법조인의 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강대규씨가 가장 많은 들은 말은 ‘넌 안 될 거야’ 였다. 그의 어머니조차 ‘네가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겠냐. 명문대 나온 애들, 집안 좋은 애들만 들어가는 거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나중에 공무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법’ 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로스쿨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제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학이 어려울 거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이시죠? 저 로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하하하.”

강씨는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강용석 국회의원의실에서 첫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살, 어린 나이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 국회는 가장 잘 맞는 곳이었다. 약 3년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중, 로스쿨과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과감하게 사표를 냈다. 그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뜻하던 로스쿨에 입학했다. “고교시절

집안이 기울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교든 로스쿨이든, 장학금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했어요. 또 제가 춘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서 강원대학교 로스쿨이 저에게는 최적의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독하게 만드는 로스쿨

비법대 출신이라서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강씨는 “비법대 출신뿐만 아니라 아마 법대 출신도 공부의 압박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했지만, 1학년 첫 번째 시험에서 중간 정도의 등수를 기록하며 나름의 선방을 한 그다. 1학년 때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유지했지만,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하루 5시간 수면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새벽 3시쯤에 법학도서관 열람실에 가잖아요? 그때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다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신(神)이라고 불렀겠죠.(웃음) 우리 로스쿨은 동기, 선·후배들끼리 사이가 엄청 돈독하거든요? 기출 문제도 다같이 돌려서 볼 정도로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독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습 안하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복습을 안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바로 학생회장!

강원대학교 로스쿨 학생회 멤버는 학생회장인 강씨를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 돼 있다. 다른 로스쿨 학생회와는 다르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회에 대한 강씨의 애정은 남다르게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회는 법전을 공동구매한다든지,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이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회 멤버 수는 적지만, 우리 강원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만 할 수 있게끔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강씨는 요즘 시·도의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원대 로스쿨이 처음 유치될 즈음, 강원도 18개 시·도에서는 강원대 학생들의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로스쿨 3기까지는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으나, 지금은 기간 만료의 문제로 전보다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었다. 때문에 강씨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장학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ditor_ 박소희

강원대 로스쿨 학생회장 강대규가 말한다!

로스쿨 입학 노하우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로스쿨 입학 요소인 LEET와 논술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사고력 증진과 논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금태섭 변호사의 <디케의 눈>, <확신의 함정>, 신주영의 <법정의 고수>, 김지룡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등은 리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이다. 책을 읽다보면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들 것이다.

면접시에는 소신을 꺾지 않아야 면접은 스테디가 가장 도움이 된다. 각 로스쿨의 면접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도 스테디원끼리 질의응답을 하면 좋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공익’ 이고 두 번째가 ‘소신 지키기’ 이다. 공익을 생각하는 법조인의 마음과 소신을 꺾지 않는 올곧은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법에는 국경이 없다.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최종개방 시점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률 국경은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법률 시장이 개방되고, 글로벌화에 따라 법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로펌은 세계를 무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의 법조인들은 다양한 국가와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법조인들이 법률 세계화(globalism)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뿌리 깊은 법학 교육의 산실이며, 이것은 약 1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로스쿨 교육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공 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

알고 가세요!

미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최초로 시도된 것은 1670년 C.C. 랭델이 법과대학장을 지낸 하버드대학교인데, 이것이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가 된 것은 1920~1930년대에 걸쳐서이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약 100년 동안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

미국 대학교에는 '법학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미국에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서 3년간의 공부를 마친 후,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해야만 한다. 또 원칙적으로 미국 법조인 협회(ABA)가 공인한 로스쿨(약 200개)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名不虛傳.

10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롤 모델로 택할 만큼 법조인 양성 제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

1 미국 로스쿨의 세 가지 과정

미국의 로스쿨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의 성격을 갖는 교육 체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Juris Doctor(J.D.)	기 간 : 3년 자 격 :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 전반적인 법 지식 교육과 더불어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훈련 위주의 교육을 실시. ※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J.D. 학위를 취득해야 함. 미국 로스쿨을 대표하는 과정.
Master of Laws(LL.M.)	기 간 : 1년 자 격 : J.D.학위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 소지자 법학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LL.M.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 하지만 최근에는 법학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영어,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학자격을 주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법학사가 없이 LL.M.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은 가능하지만 미국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자격은 없다. (테네시주 예외)
Doctor of Juridical Science(S.J.D.)	기 간 : 2년~5년(일반적으로 5년이 소요) 자 격 : J.D.학위 소지자 또는 LL.M. 학위 소지자 J.D.나 LL.M. 학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입학 허용. 주로 해외학생이 대학교수 등 학문적인 분야의 진출을 위해 취득.



2 로스쿨(J.D.과정) 입학의 6요소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비싼 학비를 감수하더라도, 법 공부에만 매진해서 법조인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로스쿨 입학은 어려울뿐더러 입학 후의 생활도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입학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구분	내용
LSAT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 로스쿨 지원자의 기본소양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미국 및 캐나다의 거의 모든 로스쿨(LL.M. 과정 제외)들이 이 시험 성적을 요구한다. 1년에 4회 실시되는데 평생 2년 동안에 한하여 3회만 응시 가능.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나 합격요소 중 LSAT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이다.
GAP	상위 로스쿨 지원자들의 학점은 3.6~4.0 정도로 우수하다.
추천서	대부분의 학교가 적어도 3통의 추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졸업한 지 5년 이상 되었다면 직장 상사로부터의 추천서도 가능하다.
자기소개서	지원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경력과 과외활동	전체의 40%만이 학부를 바로 졸업하고 온 학생들일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다. 따라서 인턴십, 봉사활동 등 스스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학부 이수 과목	로스쿨 입학에 있어 특별한 전공과 부전공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에서 다음과 같은 과목을 수강했다면 도움이 된다. - Expository writing, Public speaking, Business finance, Philosophy, Logic, Government, etc.

▣ 미국 로스쿨(J.D. 과정) 입학 LSAT 평균 점수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인정하는 로스쿨은 약 200개 밖에 되지 않아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상위 로스쿨은 단순히 학부성과 LSAT 성적이 높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예일대를 예로 들자면 J.D. 입학을 위해 보통 3~4,000명이 경쟁하고, 지원자들의 평균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3.8 이상, LSAT 180점 만점에 170점 이상이다.

각 로스쿨마다 LSAT 점수를 입학 심사에 반영하는 비중도 천차만별이다. 최상위권 로스쿨의 경우 LSAT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라면,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LSAT 점수의 비중이 높아진다.

〈통계자료 출처: EDUCATION Grad Schools, June 4, 2013〉



3 로스쿨의 교과 과정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 직전까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다. 수업 과목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목은 없다. 귀중한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시험 합격'이 목표가 아닌, '진정한 법률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로스쿨의 교과 과정은 실무적인 과정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위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로스쿨의 교재는 판례집이다. 판례는 주로 모범적인 항소나 상고심의 판결문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비교하고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1년차	2년차	3년차
-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등의 기본과목 수강 - 모의재판을 통하여 법령·판례·문헌의 조사, 법률의견서 작성, 구두 변론, 법정에서의 절차 등에 관한 기초적 훈련	- 심화된 세미나 수업 참석 - 다양한 선택과목 (헌법, 세법, 회사법, 행정법, 증거법, 독점규제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등) 수강	- 실무연습(clinical) 과정 : 모의재판, 법조실습(Lawyering)을 통해 법률지식을 실무에 적용시키는 훈련 과정을 수강

J.D.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는 1학년부턴 모든 모의재판 활동을 수행한다. 판사·배심원·참관인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하고, 학기마다 6~7개의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은 1학년부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법률가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다.

4 등록금과 장학금

	학 교	등록금(1년 기준)
1	Yale University	\$54,650
2	Harvard University	\$53,308
3	Stanford University	\$52,530
4	Columbia University	\$57,838
4	University of Chicago	\$53,301
6	New York University	\$54,678
7	University of Pennsylvania	\$54,992
8	University of Virginia	\$47,900
9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48,058
10	Duke University	\$53,596

〈통계자료 출처: EDUCATION Grad Schools, 2014〉

미국 로스쿨 등록금은 비싸다. 누군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느껴질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부담이 될 만큼 높은 금액이다. 게다가 해마다 등록금은 오르기만 할 뿐, 동결되거나 인하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미국인 학생들은 정부의 학자금 보조(federal grant) 또는 융자(loan)를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UC Berkeley 로스쿨의 경우 일 년에 약 12명, Boston University / Cornell 로스쿨은 매년 약 25명, University of Minnesota 로스쿨은 약 8명, UC Hastings 로스쿨은 약 5명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정말 극소수이다.

이렇게 장학금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년간 15~20만 달러(약 1억 5,000만원~ 2억)를 대출받아 변호사가 된 이후에 10~20년간 상환하는 일은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에 다니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오르는 학비와 높은 경쟁구조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부채부담'을 안고 졸업하게 된다.

학 교	평균 대출 금액 (2013 졸업자 기준)	부채를 갖고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 180,665	92%
New York Law School	\$ 164,739	84%
American University	\$ 158,636	88%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 157,748	90%
Northwestern University	\$ 155,777	78%
Whittier College	\$ 154,267	92%
University of Chicago	\$ 153,753	85%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	\$ 150,360	91%
St.Thomas University	\$ 150,166	91%
University of Miami	\$ 148,513	79%

〈통계자료 출처: EDUCATION Grad Schools, 2014〉

물론 USC 로스쿨처럼 입학생의 약 3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장학금 액수도 적게는 연 \$500부터 많게는 전액 장학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역시 각 로스쿨마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고작이다.



5 법조인 자격시험제도

이렇게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우여곡절 끝에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치면, 드디어 변호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국의 법조인 자격 부여 및 법조직업에 대한 규제는 각 주(州)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가 상이하다. 때문에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속한 주의 변호사자격 취득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험의 자격요건 : 일반적으로 법학사를 취득해야만 응시자격 부여(테네시주 제외). 즉, 미국 변호사협회(ABA)에서 승인한 로스쿨에서의 3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J.D. 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한하여 변호사자격시험(Bar Examination)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LL.M.졸업자는 J.D. 졸업자와 달리 미국 50개주의 모든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테네시주 등에 응시 가능.

시험의 구성 : 일반적으로 '연방법'과 함께 각 주에 고유한 주법(州法)을 필기시험으로 보며, 각 주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다.

필기시험	윤리성 (Moral Character and Fitness)	법조윤리시험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월, 7월 마지막 주 - 연방법(MBE), 각 주별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 - 주에 따라 서류 또는 서류, 면접으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3월, 8월, 11월 - 졸업 전 응시 가능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 상당수 주에서 2~5회로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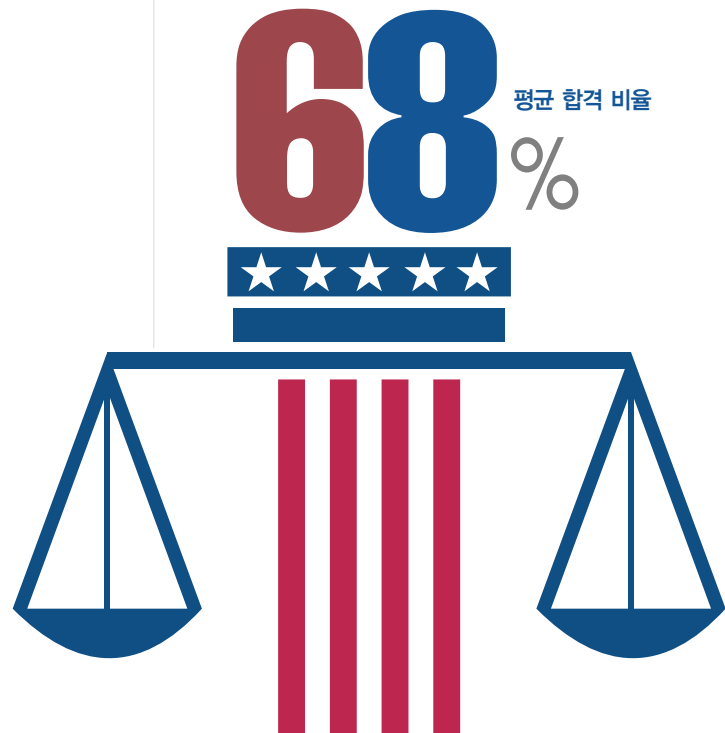
6 합격에 관한 통계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일 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데, 연 평균 8만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고 약 70%의 합격자가 나온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90%라고 보도하기 때문에, 상단 표에 명시된 낮은 수치를 보면 의아할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미국 법조인 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승인한 로스쿨(ABA-approved law school)에서의 교육을 마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California나 Massachusetts처럼 ABA의 공인은 받지 못했지만 해당 주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로스쿨의 졸업자들은 추가요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합격 비율이 낮게 집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Jurisdiction	ABA-Approved Law School			Non-ABA-Approved Law School		
	Taking	Passing	%Passing	Taking	Passing	%Passing
Alabama	426	356	84%	264	87	33%
Massachusetts	2,521	2,090	83%	312	129	41%
New York	11,219	8,572	76%	9	0	0%
Tennessee	799	625	78%	294	174	59%

〈통계자료 출처: 미국통계청, 2013 Statistics〉



연 평균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83,986 명

연 평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57,026 명

시험을 위해 지불하는
평균 비용

\$ 300

〈통계자료 출처: 미국통계청, 2013 Statistics〉

7 판사와 검사의 선임

앞 표의 미국 통계청의 2013년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ABA에서 승인한 로스쿨의 합격률과 승인을 받지 못한 로스쿨의 합격률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ABA 비공인 로스쿨을 졸업할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가 매우 제한적이고 합격률도 낮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ABA 공인 로스쿨에 진학할 것을 권고한다.

▣ 판사

미국에서는 경력 있는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임하는 '법조일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진이나 직급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급법원 판사가 하급법원 판사보다 보수도 더 많고 영예로운 자리로 인식되며, 대체로 하급법원 판사 중에서 상급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예가 많다.

여기서 잠깐!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주법원 판사의 선임방법은 주마다 다르다.



▣ 검사

연방검사는 변호사경력자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는 방식과 로스쿨 졸업생을 직접 검사로 선발하는 방식(Attorney General's Honors Program)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방검찰청은 경력 변호사를 선호하고, 연방법무부 민사부, 조세부 등에서 주로 로스쿨 졸업생을 연방검사로 선발하고 있다.

지방검사의 선발방식은 해당 주 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특히 해당 검찰청의 규모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선발 시기 및 인원이 달라진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손주니. 『미국로스쿨 올 가이드』. 법률저널, 2009.
 이종근 · 신우철 · 김종철 · 김창록 · 오세희 · 이주희.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지원에 관한 비교".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국고지원필요성 연구』, 2010, 02, pp. 3-46.
 "Best Law Schools". EDUCATION Grad schools, 2014.
 "Bar Exam Statistics". STATISTIC BRAIN, July 19, 2013.
 Claire Huismann. 『THE Bar Examiner』. th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2014.

“아부지 뭐하시노?”

로스쿨을 향한 세상의 편견에 고함

김서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비싼 로스쿨 학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이제 법조인의 꿈도 꿀 수 없다”는 말은 편견에서 나온 ‘과장된 공포’일 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한 뒤 한동안 택시를 이용할 일이 많았습니다. ‘학생 신분엔 웬 택시?’ 하고 의아할 수 있지만 두툼한 법전과 각종 교재들, 그리고 노트북까지 들어있는 책가방들 때문이라면 조금 수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등에, 어깨에 짊어진 가방들은 무겁기도 하지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입석 버스에서 둔기로 변해 다른 승객들을 이리저리 치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물함을 배정받지 못했던 학기 초엔 교통비가 좀 들더라도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몸도 편하자고 탄 택시에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적이 꽤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라는 행선지를 말씀드리면 일부 택시기사님들께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질문을 던지는 탓입니다. “거기에 부잣집 아들딸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면?” 여기에 거의 반드시 뒤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네 아버지는 뭐하시노?”

비슷한 일들을 몇 번 더 겪으면서 로스쿨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것은 ‘로스쿨은 돈이 많아야 다닐 수 있다’는 편견이었습니다. 이 명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법조인 선발 시스템인 사법고시와는 달리 가난한 고학생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져 로스쿨을 공격하는데 종종 동원되지요.

로스쿨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사회초년생의 한 달 치 월급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을 피나리붓짐마냥 편하게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 ‘도’ 있다는 말이지 그런 학생들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약 10년 전에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구매했던 낡은 책가방을 재활용하는 학생들도 강의실 안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



about the lawschool

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데 모여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돈이 많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교재도 마음껏 사서 볼 수 있고 각종 사교육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는 사법고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진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사법고시든, 로스쿨 입시든, 변호사시험이든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체제에서나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부유층의 입장 말고,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입하기 쉬운 시스템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볼까요? 물론 체제에서든 학비가 넉넉지 못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 중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가 작동할 여지가 그나마 적은 쪽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로스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로스쿨 입학에 필수적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을 살펴볼까요? LEET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공감하겠지만, 이는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추론능력 등 지적인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 강의 등 사교육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차에서 4개의 법학과목, 2차에서 7개의 법학과목 시험을 각각 치르는 사법고시와 비교했을 때 준비 부담이 덜하면 덜했지 더 크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LEET 응시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실시되는 2015학년도 LEET부터 차상위계층 등에게 응시료 27만원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5월 15일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이 증명만 된다면 누구나 입학정원의 6%를 따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형료도 큰 폭으로 할인받거나 사실상 면제됩니다. 이렇게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뒤엔 장학금과 기숙사 등 각종 혜택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 받고, 다른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습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았더라도 재정적인 곤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기회는 널리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규정(이하 ‘해당 규정’) 4조1항1호는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으로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직전 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를 꼽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점이 가계곤란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한 것입니다. 동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3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그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의 4조1항3호는 해당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게 하는 포괄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로스쿨들의 장학금 제도 역시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일 뿐 그 실질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41.2%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재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전액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면,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 우선’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다른 전문대학원들과 비교해보아도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장학금 지급률은 높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도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앞에서 봤듯 41%가 조금 넘었고 등록금 평균액은 1,508만3천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경영전문대학원 11곳의 등록금 평균액은 1,854만4천원으로 이보다 약 350만원 비쌌지만 장학금 지급률은 17%에 못 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26곳의 평균 등록금도 1,610만5천원으로 100만원 이상 높은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26% 수준에 그쳤습니다.

모든 고등교육은 태생적으로 고비용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시스템인 로스쿨제도를 '지나치게 비용이 높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고비용'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학금 제도 등 교육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는 그러한 복지 요구에 상당 부분 부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비싼 로스쿨 학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이제 법조인의 꿈도 꿀 수 없다'는 말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온 편견입니다.

Aereo를 통하여 본 방송 산업의 미래

이세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법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신기술을 기존의 법리에서 어떻게 포섭하는지에 따라 산업 전반의 모습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

확실히 스마트 세상이 되었다. 불과 십 수년 전만 하여도 방송 시청은 가정용 TV를 통한 시청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한편, 이제는 케이블,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수 개의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시청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그런데 점차 스마트해지는 세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신기술을 바탕에 둔 각종 매체의 등장 이전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직면한 위협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美 신종 방송서비스인 에어리오(Aereo)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에어리오는, 2012년 2월 미국 뉴욕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 美 대륙 내 약 2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격히 성장 중이다. 에어리오는 기존의 방송수신 형태, 즉 개별 가정에서 가정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공공재인 전파를 수신하는 직접 수신 형태나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재송신 비용을 지불한 뒤 매개자적 입장에서 개별 가정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사뭇 다른 양태를 띠고 있다.

에어리오는 핵심 기술은 손톱 크기의 작은 안테나에 있다. 에어리오는 자체 개발한 이 소형 안테나를 자신들의 데이터 관리 창고에 대량으로 설치한 뒤, 서비스 가입자에게 개별 안테나를 할당하여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한 개의 안테나가 한 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위하여 이용되도록 한다. 이용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매체라면 그 어느 것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해 둔 방송이라면 방송시간 이후 원하는 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다.

이처럼 에어리오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외에도 방송 녹화 기능까지 제공하여 지상파 방송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재송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월 8달러의 이용료로 케이블 방송서비스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

about the world

이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는 데 불만이 있고, 케이블 방송사업자 역시 자신들과 달리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에어리오는 불만을 품는 한편,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만약 에어리오는 서비스의 합법성이 인정될 경우 자신들도 에어리오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다.

결국 약 2년여 간 지속되고 있는 에어리오는 기존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업자 간 법적 공방의 핵심은 바로 에어리오는 서비스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재송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public performance)인지 혹은 재송신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적 이용(private use)인지 여하에 있다.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은 에어리오는 지상파 방송을 불특정 다수(public)에게 재송신하므로 마땅히 재송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에어리오는 자신들이 설치한 안테나가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한 명의 고객에게 할당되므로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안테나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에어리오는 기존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연달아 승소하고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연방대법원 마저 에어리오는 손을 들어줄 경우 美 방송 산업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기존의 케이블 시장도 새로이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법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신기술을 기존의 법리에서 어떻게 포섭하는지에 따라 산업 전반의 모습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당장 국내에 에어리오는 유사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예상되는 분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장에 기술 혁신을 멈출 수 없다면 이제 방송서비스 사업자들 서비스 형태를 다각화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사건은 종이에 쓰인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것”

대구지방검찰청 김석순 검사(중앙대학교 로스쿨 출신)

우리나라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검사 캐릭터'의 대부분은 웃지 않는 인상, 차갑게 느껴질 만큼 딱딱하고 냉정한 말투를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검사는 무섭다'는 편견 속에 살아간다.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대구지방검찰청 김석순 검사의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근했다. 말투에는 상냥함과 유머가 배어 있어, 함께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해졌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기자 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기사를 하다가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

약 4년 동안 방송사에서 기사를 했었다. 특히 법원, 검찰에 출입하는 법조 기자 생활을 하다보니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와이프가 많은 응원을 해줬다. 또 주변 사람들도 법조인으로서 일하는 것도 기자만큼 보람될 것이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시작한 로스쿨 준비에 힘드는 않았다.

마침 로스쿨 입학할 즈음에 편집부로 발령이 났다. 편집부는 다른 부의 기자들보다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공부하면서 준비했다.

'기자' 라는 직업의 특성상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이나 논술에 유리했을 것 같다.

아무래도 기사를 하고 있어서 국어공부는 어느 정도 돼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언어이해 영역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문제 중에 리걸 마인드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매일 판결문을 보고 재판

을 방청하던 법조기자였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또 논술 역시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다.

법학적성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한 팁을 준다면.

리트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들이 많다. 물론 리트도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 말이나 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추리 논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도됐던 판례나 법률적 쟁점들이 나오는 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두면 도움이 된다. 또 시간 내에 푸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다.

법조기자로 활동하면서 법률용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학부시절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1학년 때에는 고생했을 것 같다. 어떻게 극복했나.

1학년 1학기 때에는 무척 고생했다. 그런데 도망갈 수는 없지 않나.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공부하니 학부 때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다. 동기가 50명인데 3등으로 졸업했고 부총장상(常)도 땀다.(웃음)

변호사, 로클럭 등 다양한 직역 중에서 '검사' 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로펌에서 실무실습을 했었지만, 나에게 '검사' 가 더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로스쿨 재학 시절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솔한 고민을 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게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다. 검사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국가의 사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않은가. 그래서 검사가 되고자 했다. 또 워낙 성적이 좋기도 했다.(웃음)

검사 라는 직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검사는 형사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구하고 집행한다. 제기한 공소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를 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할 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이다.

검사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 몸담고 있나. 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작년에는 형사부에 있었고 현재는 '공판부'에 있다. 공판부 검사의 가장 큰 임무는 '공소 유지'다. 공소 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고, 어떤 취지로 기소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밝힌다.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공판 검사의 일이다. 또한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도 공판 검사의 임무 중 하나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모두 재판이 있다. 재판은 보통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네 시간 동안 진행된다. 재판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다음날 재판을 준비한다. 다음 기일에 할 재판에 대해 의견서를 쓰기도 한다.

검사 라는 직업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



“ 내가 처리하는 사건이 단순하게 종이에 적힌 기록이 아니라, 이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검사가 되고 싶다 ”

까?',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등을 퍼즐 맞추듯 맞추어 가는 일이 검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의 취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검사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정의의 실현을 뜻한다.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검사의 임무이다. 이는 형사 사법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반면에 힘든 점도 있을 것 같다.

검사는 좋든 싫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내가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수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여기에 엄중함과 무거움을 느낀다. 선배 검사님들과 부장 검사님이 계시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내 몫이다. 여러 가지 정황과 인적, 물적 증거도 있지만,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어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하고 결국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다.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수사가 잘 되고 공판까지 잘 돼서, 피고인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졌을 때다. 또 가끔씩 피의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한번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친족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이분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야 했다. 절차를 모르는 피고인의 친족에게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하도록 전달했다. 그날 그분은 석방돼 부친 임종을 지킬 수 있었고, 후에 다시 수감됐다. 본인은 죄를 지어서 구속이 됐지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검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

검사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조언 해준다면?

검사 임관을 하려면 학점 관리가 중요하다. 검찰실무 I, II를 수강해야 하고, 검찰심화실무실습도 다녀와야 한다. 실습은 검찰실무 성적이 좋거나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선발되기 때문에, 결국엔 평소에 학점관리를 잘 해야 한다. 또 기본 과목들을 충실히 들어야 한다. 나 역시 처음에는 검사는 형사법만 알면 되는 줄 알았지만 막상 검사가 되어 보니 형사법뿐만 아니라 민사법, 행정법도 잘 알아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민사법이나

행정법의 법리에 따라 범죄 구성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법을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

검사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무엇인가.

검사 선발전시험을 볼 때, 로스쿨에 출강하시던 검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검사답게 말하고 검사답게 생각하라!' 내가 검사라면 이 사안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검사가 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건을 처리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만큼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기쁘다.

현재의 꿈은 무엇인가.

'좋은 검사'가 되는 것이다. 법리에 대한 지식 많은 것, 유능한 법률가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검사가 좋은 검사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참고인이든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것을 간과하게 된다면 마치 게임을 하듯이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수사 대상을 단순히 객체로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굉장히 위험할뿐더러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처리하는 사건이 단순하게 종이에 적힌 기록이 아니라, 이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검사가 되고 싶다. editor _ 박소희

“외국인 법률 구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리걸클리닉으로 오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리걸클리닉은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정문 바로 옆 건물에 상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다. 인터뷰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법률상담소를 찾았을 때에도, 브라질인에 대한 상담이 잡혀 있어 상담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글로벌법률상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교수와, 이제 갓 변호사가 된 황서현 변호사를 만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리걸클리닉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정한중 : 우리 리걸클리닉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법학 교육(리걸클리닉)을 실시하면서 원생들에게 리걸클리닉의 봉사과 공익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전원은 ‘국제지역 법조인양성’을 특성화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외국인 및 국제지역법에 관한 법률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왔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정한중 : 전화나 팩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건을 접수 받는다. 클리닉의 목표인 교육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 즉 법률 상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학생들에게 배당된다. 형사 클리닉, 민사 클리닉, 외국인 인권 클리닉으로 나뉘며 각 클리닉에서 상담 변호사와 소속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

정한중 : 2010년 3월 리걸클리닉이 설립된 이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리걸클리닉은 가장 기본적으로 법전원 학생들에 대한 임상법학 교육을 수행 해왔다.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이론과 판례의 응용능력 계발을

위해서 실제 사건을 통하여 민사 클리닉 등 정규 수업 및 상담 활동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서비스도 수행한다.

아무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외국인 상담 사례가 많을 것 같다.

정한중 : 그렇다. 우리 리걸클리닉은 외국인 근로자 등, 특히 제3세계 외국인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콩고인 난민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나이지리아인의 재심청구사건에서 감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는 주한 브라질 대사관과 법률자문 MOU도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 특히 한국 거주 브라질인 등에 대한 법률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학교의 특성상 외국인의 이혼소송, 외국인과 관련된 민·형사 사건, 출입국 문제, 귀화 문제, 난민 소송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아마 다른 법전원 리걸클리닉에 비해서 우리 리걸클리닉의 외국인 관련 상



담 건수와 구조시스템이 월등히 잘 되어있다고 자부한다.

브라질대사관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한 이후, 브라질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었나?

정한중 : 그렇다. 브라질 교민들이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소송 구조까지도 이어진다. 작년 거제 삼성조선소에 근무하는 브라질 근로자가 도주차량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지난 시점에서 상담요청이 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제기하도록 상담하였고, 법원에서 받아주었다. 이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으로 알고 상담하였는데 유죄가 인정될 때 외국인 근로자의 해고위험과 강제추방 우려 등 문제로 국제사법의 근로계약의 준거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 무렵 거제에 개업한 외대 로스쿨 출신으로 영어를 잘 하는 유태영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중이다.

리걸클리닉 운영에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정한중 :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항상 부족하다. 우리 리걸클리닉은 외국인 상담 사건이 많아서 특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상근 변호사가 있으면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외부 상담 변호사와 책임 교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리걸클리닉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각 로스쿨 마다 상근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오른쪽 /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왼쪽 / 황서현(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정부에서 지원금을 늘려주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가?

정한중 :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일 년 동안 많은 사건을 소송구조할 수가 없다. 리걸클리닉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구조를 해줬으면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서 더 구조를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는 운영비 정도의 지원금만 나오고, 정부의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니, 더 많은 소송 구조를 진행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마 지원금이 늘어나면 외국인 소송 구조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것이다.

향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리걸클리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정한중 :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 법률 구조에 더 많이 치중할 것이다. 우리 리걸클리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다. 상담센터가 정문 근처에 위치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외국인 법률 구조 및 상담에 힘쓰고 싶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법률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상담도 우리 리걸클리닉에서 맡아서 할 예정이다.



공부 힘들 때 리걸클리닉 통해 Refresh!

황서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리걸클리닉 활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달라.

황서현 : 모두가 알다시피 리걸클리닉의 취지는 공익적 목적에 상당히 부합한다. 리걸클리닉에 참여했던 학생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워낙 학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필요하다. 학교의 수업이 실무 위주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리걸클리닉의 활동처럼 의뢰인과 직접 만나는 실무에 투입 될 기회는 많이 없었다. 리걸클리닉 활동은 3년 기간 중 의뢰인과 만나서 상담하고, 서면도 써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서 refresh 되는 것을 느낀다. 또 '법 공부를 해서 향후에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에 대한 해답을 리걸클리닉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됐다. 반면에 단점은 아무래도 사건이 랜덤으로 배정되다 보니, 원하는 사건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큰 부담이 가지는 않았는데, 동기들 중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큰 사건을 맡아서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리걸클리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야기해달라.

황서현 : 주로 의뢰인에게서 접수받은 서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들도 조사한다. 관계 법령 및 판례를 적용해서 준비서면에 가까운 형식의 최초의 견서를 작성한다.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 파악이 어려우면, 센터장이신 정한중 교수님이나 자문 변호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소송지원 여부,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전략 및 기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등도 결정한다. 회의가 끝나면 의뢰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한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기타 신청서 등 법률서면의 작성을 도와준다.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황서현 : 고 3학생이 지하철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학생이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우리에게 상담을 의뢰해왔다. 당시 학생들끼리 지하철역에도 가보고,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1심에서는 유죄(벌금형)가 선고되었으나 무죄 가능성이 커서 외대 리걸클리닉에서 항소심까지 계속 구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축하한다. 앞으로는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황서현 : 이란어를 전공했다. 또 로스쿨에 와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보니 최근에는 '이민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요즘 제3세계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공부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변호사가 된 요즘에는 직업 자체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공익과 부합하는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editor _ 박소희



LawSCHOOL 창

명예기자단 1기를 소개합니다!



〈로스쿨 창〉 명예기자단 1기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최고의 학생들로 구성됐습니다. 명예기자단이 들려줄 로스쿨에 대한 이야기,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로스쿨 창〉에서는 명예기자들이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서연 (서울대학교 로스쿨 6기)
많은 분들과 지면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재미있고 알찬 기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한 기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를 통해 〈로스쿨 창〉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 일각의 왜곡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나미라 (인하대학교 로스쿨 5기)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시시콜콜 써내려가다가 문득,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알지 못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로스쿨 쏠의 문을 두드린 것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생각 끝에 나는 겨우 “나에게는 생각이 있다”는 천양희 시인의 말을 생각해냈다. 생각하며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박성태 (인하대학교 로스쿨 5기)
첫눈에 반하게 되어 만남을 시작했지만 사귄수록 재미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채롭고 깊은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여러분! 다채롭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5기 박성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다채롭고 깊은 매력적인 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백국현 (아주대학교 로스쿨 4기)
아주대 로스쿨 4기 백국현입니다. 로스쿨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 등을 담은 글을 연재하고 싶은 생각에 로스쿨 창에 명예기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을 잘 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명예기자 활동이 법학 공부에만 매몰되어 지치지 쉬운 로스쿨 생활에서 소중한 사유 소통의 기회가 되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손영현 (경희대학교 로스쿨 3기)
군에서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만 꾸고 있었던 저에게 로스쿨제도가 주었던 희망은 당시 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누구나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던 저에게는 허상이자 망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로스쿨에 대한 오해가 없어질 수 있게 하려고 명예기자에 지원했습니다. 전 국민이 로스쿨의 강점과 장점을 알려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오반석 (한양대학교 로스쿨 5기)
언론고시를 보고 소위 ‘메이저’ 언론사의 방송 기자로 입사했지만, 이는 어릴 적부터 꿈꿔 오던 법으로의 회귀(回歸)를 이끌었습니다. 복잡다단한 인간사 가운데 정의와 형평이 무엇인지 당대의 천재들이 수백 년 이상 고민하여 온 법(法), 그 길이 저의 진로라 생각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보니 법전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전에는 단지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적혀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삶, 자유의 존중까지 저로 하여금 경외감을 들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법조인이 되고자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유혜진 (아주대학교 로스쿨 6기)
중학생 때 문제아로 지목된 친구와 짝이 되면서 교실에서 얼마나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 부당함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게 됐고, 이 날은 그의 권리를 찾는 조그만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약자의 입과 귀’가 되고자 기자가 되었는데, 막상 기자로 재직해보니 취약층의 권리문제가 결국 소송으로 귀결됨을 경험했습니다. 법을 통해 이들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얻게 됐고 로스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치열한 학습을 통해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감 능력과 이성을 겸비한 법조인이 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윤성보 (부산대학교 로스쿨 5기)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에이브러햄 링컨).’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윤궁정’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좋은 글을 써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대일 (전남대학교 로스쿨 5기)
안녕하세요? 이대일이라고 합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로스쿨(5기)에 재학 중입니다. 명예기자가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대내적으로 로스쿨 간 소통을 하는데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국민이 국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조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세경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6기)
눈 깜짝할 사이에 비법학사(언론정보·자기설계 전공) 출신의 좌충우돌 첫 학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채우고 채워도 많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뽀뽀한 로스쿨 일정 속에서도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갖고 싶어서 ‘창(窓)’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창(窓)’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진수빈 (전북대학교 로스쿨 6기)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진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로스쿨 창〉을 통해 독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명예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식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또 제 특유의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니, 꼭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치유의 공간'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있는 '집'이 그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적한 '산책로'가 그럴 것이다. 높은 고층빌딩과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실 새 없이 매연을 내뿜는 이 도시에서 치유의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눈과 귀를 열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까지 살며시 열어보면 치유의 공간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여기 몇 군데의 대표적인 치유의 공간이 있다. 백 년도 훌쩍 넘은 미술가의 작품을 걸어놓은 곳부터 우리나라 연극의 메카로 불리는 곳, 광화문 한복판에 능률한 자태로 서있는 곳, 매년 뜨거운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까지. 도심 속 치유의 공간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전시·공연을 소개한다.



- 전 시 명 :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 전시기간 : 2014.06.27.(금)~2014.9.17.(수)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제3~4전시실)
- 입 장 권 : 성인 _ 13,000원, 초·중·고생 _ 10,000원, 유아 _ 8,000원
- 홈페이지 : <http://www.sac.or.kr>

Exhibition

19세기 인상파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20세기, 위대한 화가들>은 미술의 혁신을 가져온 인상주의부터 현대미술까지, 격변의 20세기를 보낸 미술의 다양한 사조와 전반적인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시대를 달리하는 53명의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회화, 콜라주,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104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역사적 사건들과 문화, 다양한 시대적 배경이 빚어낸 예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여러 미술사조의 탄생 배경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다. 모네, 르누아르, 마티스, 블라맹크, 피카소를 비롯해 빅토르 바사렐리,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미안 허스트까지 세계 미술의 흐름을 통해서 미술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연출된다.

2014년 비교 불가한 페스티벌이 돌아왔다! 탄탄한 라인업, 쾌적한 장소, 의리 있는 가격으로 무장한 제9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록음악 팬들을 찾는다. 펜타포트는 가격, 장소, 라인업, 분위기 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페스티벌계의 절대강자로 중무장하고 다시 돌아왔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페스티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동안 2013년 8만명이라는 관객입장 기록을 세우며 명성을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는 더욱 강력한 라인업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의 헤드라이너로 유명한 카사비안부터 트레비스, 이승환, 스타세일러, 보이즈 라이크 걸즈 등 100여 팀이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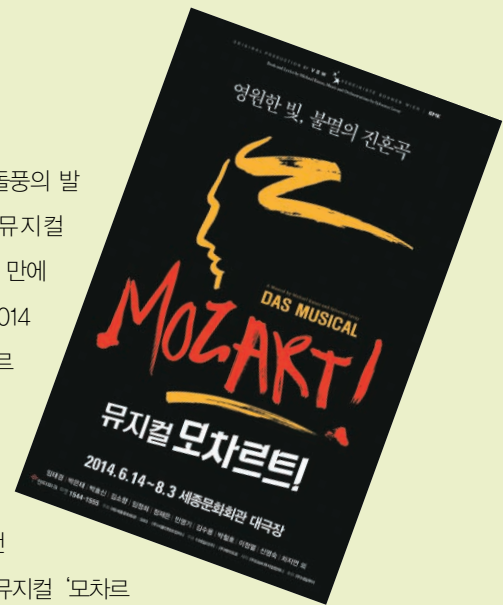
- 공연 명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4
- 공연기간 : 2014년 6월 11일~7월 6일
- 공연장소 : 송도 달빛축제공원
- 관람료 : 1일권 11만원, 2일권 15만4천원, 3일권 18만7천원
- 홈페이지 : www.pentaportrock.com



운명을 거부한 음악의 거장,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상상력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뮤지컬 모차르트!

유럽 뮤지컬 흥행돌풍의 발판을 마련했던 뮤지컬 '모차르트'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2014년 뮤지컬 '모차르트'

는 각색, 연출, 무대 등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 한층 더 치밀해진 스토리와 밀도 높은 구성으로 재탄생 되었다. 18세기 유럽을 주름잡았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아직까지도 수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그의 이야기들은 많지만 뮤지컬 '모차르트'는 전혀 색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 '아마데우스'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라이벌이자 그의 재능을 질투하는 살리에르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뮤지컬 '모차르트'는 그의 천재성보다는 인간 모차르트에 더 집중하여 그의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했던 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특히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를 의지의 주체인 볼프강(Wolfgang)과 재능의 근간인 아마데(Amadeo)로 분리 시켜 내면의 갈등을 표현한 탁월한 구성력은 많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 공연 명 : 뮤지컬 모차르트! (Das Musical MOZART!)
- 공연기간 : 2014.06.14.(토)~2014.08.03.(일)
-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관람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 홈페이지 : www.musicalmozart.co.kr

Musical Performance

아득한 기억 저편,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별곡



<사랑별곡>은 충남 서산의 한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삶의 고단함을 안고 사는 40대부터 죽음과 마주한 80대까지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한국 특유의 '정(情)'와 '한(恨)'을 몽글한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연극열전5> 첫 번째 작품 <사랑별곡>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이자 최근 '꽃보다 할배'로 젊은 세대와 더욱 가까워진 이순재, 국민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송 3사의 연기 대상을 휩쓴 배우 고두심, 연극·뮤지컬·영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송영창, 생활 연기의 달인이라 불리는 서현철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다시 없을 화려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로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지라도 마음 속 오랫동안 간직한 공작아버린 사랑과 그 이상의 애뜻함이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랑별곡>은 최근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팽배해진 이 사회에 잔잔한 웃음과 진한 눈물을 선사하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공연 명 : <사랑별곡>
- 공연기간 : 2014.05.02.(금)~2014.08.03.(일)
- 공연장소 : 동송아트센터 동송홀
- 관람료 : R석 6만원, S석 4만5천원
- 홈페이지 : www.thebestplay.co.kr

NEWS

제27차 이사회 개최



6월 9일, 서울 서소문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의실에서는 제 27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신영호 이사장을 비롯해 10명의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제28차 총회(‘14.05.21)에서 심의·의결된 법전문협의회 신임 임원의 상건례가 이루어졌다. 또한 본 이사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오픈



지난 7월 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로스쿨 인재들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가·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자와 채용자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실무수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 현황 및 수습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 및 면접과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lawschoolcareer.or.kr) 이다.

2014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오는 8월 23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비에르관에서는 2014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가 열린다.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는 국제인권 분야에 대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모의재판대회로, 국제인권과 인권이론의 관점에서 국내외 인권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제공한다. 본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는 국제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인권 법률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 NGO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 시 : 2014년 8월 23일(토)
- 장 소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비에르관
- 본선 참가인원 : 사전에 등록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48명
- 공동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 주 관 : 한국인권재단
- 후 원 : 법무부, 주한미국대사관
- 문 의 : 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www.humanrights.or.kr
전화 02)363-0002